



## 들어가며

‘노벨상 사관학교’<sup>1)</sup>로 불리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Max-Planck) 연구소<sup>2)</sup>는 최근 전 세계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논문 500여 편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sup>3)</sup> 2차 대전 이후 이른바 ‘케인즈 처방’에도 반세기 동안이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포디즘(fordism)<sup>4)</sup>의 위기 속에서 세계시장이 발견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향한 장밋빛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결과다. 사실 디지털 생산체계는 제대로만 굴러간다면 새로운 형태의 이윤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희망의 동아줄로 인식돼 왔다. 풍요로운 물질 사회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욕구가 분출되고 건강한 여론이 형성될 때 비로소 민주적 법치국가가 작동한다는 것이 종전 후 서구 열강이 추구해온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이다.

하지만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등 빅테크(big tech)가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만큼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지 못한 채 거의 광고수익에만 의존하는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고가 세력을 넓혀갈수록 무한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미학이 인간의 무의식까지 장악해가고, 민주주의의 이상은 ‘느낌’을 사고 파는 브랜딩 제국의 기세에 밀린다. 이제 온라인 시장은 ‘생산적’ 재화가 아닌 강렬한 ‘노스텔지어’를 판매하는 디지털 상인이 주도하기 시작했다. 유튜버(YouTuber)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sup>5)</sup>라는 이름으로, 문화자본이 잉태한 이 ‘신인류’는 문화적 정치적 근육을 키우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독자들의 우상(偶像, idol)이 되고 있다. ‘포퓰리즘 아니냐’는 의혹을 받으면서도 유명 정치인들이 유튜브에 앞다투어 출연하는 시대다.

1) 황규락 (2024. 1. 9). ‘노벨상 사관학교’ 獨 연구소에 첫 한국인 단장. <조선일보>. URL: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4/01/09/2ZFPVZ6WBBGGBBL3DO4ODWVE7Q/> 박영률 (2019. 10. 19). 독일 ‘노벨상 사관학교’ 포항에 분원.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425659.html](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425659.html)

2)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화학물리학, 생물학, 의학, 인문사회과학 등 분야별로 연구영역이 분화되어 있다. 1948년부터 최근까지 총 3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3) Lorenz-Spreen, P., Oswald, L., Lewandowsky, S., & Hertwig, R. (2022). A systematic review of worldwide causal and correlational evidence on digital media and democracy. <Nature Human Behaviour>. URL: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62-022-01460-1>

4) 포디즘은 20세기 초반 헨리 포드(H. Ford)가 도입한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를 말하지만 사회구조와 인간심리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 Drucker)는 포디즘으로써 구체화된 대량생산 아이디어만큼 사회구조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없다고 보았다. 1960년대 이후 포디즘이 찍어낸 상품들은 정형화되어 있어서 개인의 취향이 다양해진 시장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Peter F. Drucker: Gesellschaft am Fließband. Eine Anatomie der industriellen Ordnung, Frankfurt a.M. 1949/50, S. 15.

5) 사이버 레커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빠른 속도로 몰려드는 견인차를 의미하는 레커(렉카)에서 유래한 신조어로 레커처럼 빠르게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이슈를 자극적인 영상으로 만들어 이익을 얻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등을 말한다.

유튜버의 힘이 커지고 여론 영향력도 커지자 이들에 대한 비판도 커진다. '공동체 안에서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élēs)조차 중우(衆愚) 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선동하는' 여론을 부정적으로 보았듯, 선동하는 신인류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다. 사실 여론 자체는 별로 신뢰할 게 못 된다는 통찰이 있다. 근대 국가의 규범성을 정초한 철학자 헤겔(G. F. W. Hegel)은 <법철학>에서 "여론은 거짓이거나 진실이다"라면서 여론 자체에 합리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론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일은 위대한 인간의 일"이라고 했다.<sup>6)</sup> 사실 '여론 합리성'은, 생존하는 사회학의 기준<sup>7)</sup>으로 불리는 하버마스(J. Habermas)의 공론장(Öffentlichkeit) 개념에서 규범적 함의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민주주의는 국가시민에게 동등한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는 근대법의 수단을 사용하여 구성된 정치 공동체라는 점에서 고대의 민주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하버마스의 진단은 미디어 민주주의로까지 진화한 오늘 매우 의미있게 들린다.<sup>8)</sup> 민주주의에서 공론장은 사회적 합의와 법규범, 여론을 연결시키는 기반이다. 공론장에서 형성된 규범들 즉,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근대 입헌공화주의 속에서 헌법에 포함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법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당성'이라는 가치를 여론의 척도로 삼을 수 있게 됐다.<sup>9)</sup>

사정이 이렇다면 이 '탈진실(Post-Truth)'<sup>10)</sup>의 시대에 '신인류'는 진실 발견의 책무를 다하는 위대한 인간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을까. 최근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의 대명사로 전락한 사이버 레커가 몰고온 어둠의 그림자를 뚫고 신인류는 밝고 선(善)한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라진 '패리스 힐튼'과 떠오르는 '신인류'

신인류의 등장 과정부터 살펴보자.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2010년대 중반 경에야 스스로를 규정짓는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메타포(metaphor)를 찾았다. 바로 '플랫폼 경제'였는데, 이제는 실물경제 못지않은 위상을 차지하게 됐

6) G.W.F 헤겔 (2008). <법철학>. 임석진(역). 파주: 한길사. 한편, 세계적 여론전문가인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n)이 제시했던 유령공중(the Phantom Public)은 바로 이러한 헤겔적인 고민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7) 하르트무트 로자 외 (2024). <사회학 이론>. 최영돈·이중희 전대국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p.177.  
 8) 위르겐 하버마스 (2024).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변동>. 한승완 (역). 서울: 세창출판사. p.97.  
 9) 장춘익 (2022). 비판과 체계: 하버마스과 루만. 서울: 21세기북스. pp.32-38.  
 10) 탈진실은 일반적으로 감정이 사실보다 중요시되고, 진실이 낮은 가치를 부여받는 현상을 말한다. 소셜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상충되는 정보에 따른 혼란과 전문가 불신이 커지면서 정보 신뢰도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용자들은 진실인지 아닌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공허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다. 보편적 시장원리를 따르는 플랫폼 경제는 ‘경제’를 넘어 일상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정신문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벌써 30년 전인 1995년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 Negroponte)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교수가 저서 <디지털이다>(Being Digital)에서 “디지털 삶”과 “행복한 연결”에 대해 고찰한 이래 디지털은 삶의 일부가, 아니, 어쩌면 전부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플랫폼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업 자체보다는 마케팅을 잘해야 하는 신인류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한 때 ‘관음증’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를 유행시키면서까지 유명인의 사생활을 파헤쳐 이슈를 창출해내던 ‘파파라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패리스 힐튼(P. Hilton)<sup>11)</sup>으로 대표되는 파파라치 전성시대는 플랫폼 시대 이전인 2000년대까지다. 힐튼의 자리는 이제 유튜버들이 대체하기 시작했다. 특별한 삶을 보여주던 스타의 시대는 가고 평범한 삶을, 팔로워(follower)들의 일상과 다르지 않은 시공간을 보여주는 유튜버들이 힐튼의 자리를 대체했다.<sup>12)</sup> 너와 내가 일대일로 만난다는 느낌을 공유하면서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에 대해 직접 ‘존재증명’에 나서고, 이를 적절한 앱(app)과 쇼츠(shorts)로 끊임없이 송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제 ‘카카오’를 넘어서는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명실상부 ‘대세’다.<sup>13)</sup>

초기 유튜버 세대는 시대를 잘 만난 사람들이었다. 당시 만해도 콘텐츠 업로드(upload)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관심과 인정이었다. 관심 받고 인정 받고 싶어서 진정성 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회마저 평등했으니 노바디(nobody)가 단숨에 유명한 somebody가 될 수 있는 시대였다.<sup>14)</sup> 예전에는 연예인 아역 스타나 특정 집안 출신들이 ‘아빠찬스’, ‘엄마찬스’ 덕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었다. 하지만 유튜버에는 그런 찬스카드가 없다.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듯 채널을 개설하기 시작한 그들에게는 ‘진정성’이라는 무기

11) 정기철 (2009. 9. 26). 패리스 힐튼 “파파라치 신경쓰지 않아”. <동아일보>. URL: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071109/8509983/1> 이정일 (2009. 7. 24). “월 1000만원도 거뜰” 파파라치 전성 시대. <아시아경제>. URL: <https://cm.asiae.co.kr/article/2009072409515584046>

12) 힐튼이 공인(公人)으로서의, 스타로서의 삶을 보여줬다면, ‘사생활’ 또는 ‘직업생활’이 사업수단이고 집이 곧 사무실인 유튜버들은 ‘증언’의 삶을 보여준다. Ole Nymoer, Wolfgang M. Schmitt (2021): *Influencer—Die Ideologie der Werbekörper*, Berlin: Suhrkamp

13) 이용자 수를 보면 유튜브는 국내 1위다. 2024년 2월 월간활성이용자(MAU)는 4,550만 명으로, 이용자 수 2위인 카카오톡(4,519만 명)보다 30만 명 가량 앞섰다. 그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이승우 (2024. 3. 4). 한국인 유튜브 시청시간 5년새 2배 급증. <한국경제>. URL: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0462181>

14) Ole Nymoer, Wolfgang M. Schmitt (2021). Ebd.



가 있었다. 심지어 이들은 ‘역사의 종말’<sup>15)</sup>을 주장한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F. Fukuyama)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다. 후쿠야마가 보기에 앞으로 펼쳐질 ‘역사의 종말’의 시대는 슬픈 시대다. 어떤 추상적 목표를 위한 자기희생이 사라진 시대일 뿐만 아니라 “예술도 철학도 없는” 시대다. 그것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역사가 존재했던 시절에 대한 강렬한 노스탤지어가 느껴지는” 시대다. 하지만 이 유명한 정치학자의 진단도 더 예쁘게, 더 맛있게 살자는 신인류의 진성성 앞에서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sup>16)</sup>

다만, 언제부터인가 ‘체험과 증언’의 삶을 보여주는 유튜브의 영상에 광고가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다. 신인류를 움직이는 동기가 어느새 ‘더 예쁘게, 더 맛있게’ 사는 것이 아닌 ‘돈벌이’가 되고 있다.<sup>17)</sup>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되는 것이, 광고를 받고 수익성을 늘리는 것이 행위동기가 되고 있다.<sup>18)</sup> 물론 수익

15) 프랜시스 후쿠야마 (1992). <역사의 종말>. 안진환(역). 서울: 한마음사

16) MDR365 (20021). Interview mit Wolfgang M. Schmitt “Influencer sprechen eine Sehnsucht an”. (MDR). URL: <https://www.mdr.de/medien360g/medienwissen/interview-wolfgang-schmitt-102.html>

17) 실제로 플랫폼산업 초기 디지털 플랫폼은, 한계비용제로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진성성’이 느껴지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다양한 정보를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제레미 리프킨 (2014). <한계비용 제로 사회>. 서울: 민음사 참조

18) 구글(유튜브)이 광고를 게재해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은 구글이 45%, 유튜브가 55%를 갖는 구조다. 채널의 시청자와 동영상 수, 영상 길이, ‘좋아요’ 수에 따라 광고금액은 달라진다. 유튜브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시장 규모는 2조 원의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동철·오로라 (2019. 7. 25). 한달에 수익이 30억... 유튜브 新갑부시대... 누구나 할 순 있지만 아무나 돈을 벌 순 없다. <조선일보>. UR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5/2019072500053.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5/2019072500053.html)

창출을 위한 광고는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관심의 힘을 받아 얻게 된 광고의 힘으로 디자인된’ 영상의 목적이 ‘진정성’에서 ‘수익창출’로 변하게 되면서 상품경제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는 더 예쁘고, 맛있는 삶을 공유하는 것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예쁘고 맛있는 콘텐츠를 점령하기 시작한 광고미학은 수익욕구에 늘 배고파하는 인간의 무의식까지 장악할 수 있다. 구독자의 이성애 어필하는 영상들이 아니라 감각을 자극하는 영상들은 이러한 무의식적 욕구들을 더욱 강화한다. ‘언박싱’을 낚고 바라보거나 군침을 삼키면서 멍하게 ‘떡방’을 지켜보는 구독자들은 역사 없는, 이야기 맥락(narrative) 없는 감각적인 쇼츠에, ‘짤방’에 익숙해져간다. 거기엔 가령, 몸매 관리를 위한 피트니스(fitness) 콘텐츠가 넘쳐난다. 삶의 거의 모든 요소들이 가격으로 환산될 수 있는 오늘, 자신의 몸조차 상품으로서 홍보하기 위해선 트렌드에 맞는 몸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몸을 갖지 못하면 자칫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찍힐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은 이제 자신을 홍보하는 연예인이자 타인의 삶을 훑쳐보는 구경꾼들이 되고 있다.<sup>19)</sup>

## ‘외로운 사회’와 사이버 폭력

삶의 모든 부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포스트포디즘(post fordism) 시대<sup>20)</sup>에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과로만이 아니다. 집단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외로움 또한 현대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가령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한 카드사 광고 카피에서 보이듯, 외로움과 무기력은 이 시대의 병적 특징이다. 그 어떤 시대보다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대에 외로움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sup>21)</sup> 더구나 문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피상적이고 얇은 인간관계를 낳고, 맥락 없는 정보들이 우리들의 이야기(narrative)를 위축시켜 유대감이 사라지면서 외로움이 늘어난다는 점이다.<sup>22)</sup> 디지털 ‘상시접

19) 한병철 (2014). <폭력의 위상학>.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p.167.

20) 20세기 후반 새로운 정보기술의 바탕 위에 규격화에서 벗어난 생산방식과 소비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양식을 말한다. 포디즘이 갖고 있는 경직성의 한계는 포스트포디즘의 징후로 나타났다. 이 생산양식은 기존 양식과의 충돌과 갈등 속에서 높은 실업률, 부동산 시장 문제, 신용불량자 등 불안정성과 위기를 발생시키는 내재적 경향성(inherent tendency)을 갖는다.

21) 한국 성인의 87.7%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소아 (2022, 7, 2). *日선 '고독 장판' 등장...외로움 덮친 한국, 그마저도 혼자 푼다.* <중앙일보>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3848>

22) 최근 대면 관계를 통한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를 추구하는 Z세대가 등장하는 흐름은 디지털이 주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일지도 모른다. 정호훈 (2024, 9, 20). “Reading is so sexy”: Z세대의 도파민, 독서. <KIST 웹진>. URL: [https://m.blog.naver.com/kist\\_public/223590045949](https://m.blog.naver.com/kist_public/223590045949)

속의 상황은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을 빼앗고 외로움의 시간을 늘린다.<sup>23)</sup>

외로움은 혐오, 폭력, 극단적 갈등 등 현대 사회 다양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것은 타자에 대한 혐오, 극단적 정치 포퓰리즘 등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외롭고 불안정한 사람은 불안한 감정을 타자에게 투사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인다.<sup>24)</sup> 이러한 현실에서의 폭력 행위는 이제 장소를 바꿔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자주 사용할수록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따돌림 등과 같은 사이버 폭력<sup>25)</sup>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여기 사이버 레커가 이러한 사이버 폭력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폭력에는 증상, 비방, 모욕 등 '부정성의 폭력'과 욕망을 자극하는 '긍정성의 폭력'이 있다.<sup>26)</sup> 긍정성의 폭력은 가령, 자발적인 강박에 사로잡혀 지극히 사적인 것까지 SNS에 올리거나, 무언가 과시하고 싶고, 타자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올리는 포스팅 등이다. 이런 '폭력의 양가성'을 고려해 보면, 외로움의 상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심지어 전체주의 지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외로운 사람은 자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성향을 보인다.

아렌트(H. Arendt)에 따르면 외로움은 전체주의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다.<sup>27)</sup> '전체주의'(totale Herrschaft)는 집단에서 배제될 것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을 선호한다. 사람들은 특정 견해에 반대하더라도 집단에서 배제될까봐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디에라도 소속되고 싶은 외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전체주의의 '먹이'이다. 실제 나치 히틀러 집권 당시 독일인들은 나치즘에 대한 공격이 곧 독일에 대한 공격이라고 스스로 되뇌이며 나치즘에 반기를 들지 않았다.

결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자주 이용할수록 외로움이 커지는 한편, 동일

23) 지그문트 바우만(Z. Bauman)은 '고독'을 혼자 있음으로, '외로움'을 유대감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 상태로 설명한다. 고독의 시간은 외로움과 달리 숙고하고 반성하며 창조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절대 필요한 시간'이다. 이승훈 (2024). 디지털 시대의 외로움, 인문 정신으로 잇기. <공공사회연구>, 제14권 1호, pp.237-261.

24) 이승훈 (2024). 앞의 글 p.239.

25)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 1의 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6) 김세원 (2022). 폭력의 변검술과 폭력 없는 세상을 상상한다는 것. <황해문화>, 통권 제117호, pp.354-366.

27) Hannah Arendt (1955). Elemente und Ursprünge totaler Herrschaft. Piper Taschenbuch; 24. Edition(1. Dezember 1991)

한 정치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뭉치면서 알고리즘 추천 기술 등에 의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해지는 위험한 현상은, 확증편향을 일으키는 에코 챔버(echo chamber) 효과<sup>28)</sup>를 낳을 수 있다. 시사 유튜버들이 자칫 집단주의는 물론 전체주의마저 조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 사이버 레커, 사회적 병리의 원인일까 증상일까

‘권력’ 하면 떠오르는 전통적 기관이나 제도(국가, 종교, 가족, 레거시(legacy) 미디어 등)의 영향력이 줄어든 자리에 나혼산(나 혼자 산다),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의 물결이 밀려온다. 전통적 기관, 제도에서 도출됐던 보편적 기준이 오랜 인식 판단 기준의 지위에서 밀려난 자리에, 분화된 수많은 디지털 플랫폼 공론장‘들’ 속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유튜버의 ‘레커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운다.

시사 유튜브 채널이 이미 언론과 유사 기능을 하고 있는 시대다.<sup>29)</sup> 유튜브가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추세에서 시사 유튜버는 저널리즘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문화적 생활양식,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등이 분화되어 이질적인 성격을 획득할수록 주요 이슈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어려워지는데, 바로 그 틈새공간을 시사 유튜버들이 채울 수 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분화된, 다양한 채널들 속에서 특정 이슈와 뉴스를 자세하게 논평함으로써 여론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 한국><sup>30)</sup>에 따르면, 전 세계 46개국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3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53%는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 조사 결과보다 9%p 증가한 것이다. 시사 유튜브 채널 수도 증가하고 있다.<sup>31)</sup> 주요 이용 동기 가운데 ‘심리적 안정’이 포함돼 있어 시사 유튜버의 긍정적인 측면을 추측해 볼 수 있다.<sup>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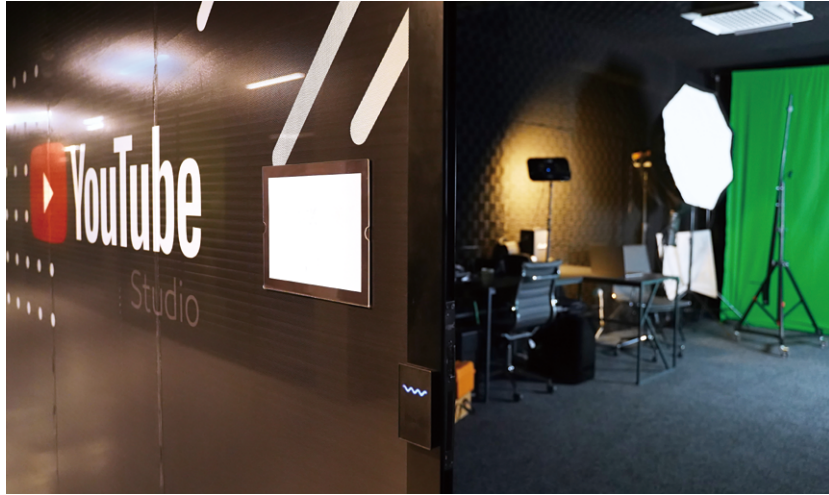
28) 뉴스 미디어에서 전하는 정보가 이용자의 신념만으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증폭 및 강화되고, 같은 입장을 지닌 정보만 지속적으로 되풀이하여 수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29)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매체 대상 신뢰도 조사에서 유튜브와 네이버가 각각 6위와 8위에 오를 정도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김영화 (2022. 9. 16). [신뢰도 조사] 신뢰하는 언론매체 ‘없거나 모르겠다’. (사사인). URL: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07>

30) 최진호, 이현우 (2024).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 한국>.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31) 송경재·장우영 (2023). 유튜브 정치정보 이용 행태와 사회 분극화: 정치/시사 채널 시청자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2호, pp.294-320.

32) 박상현·김성훈·정승화 (2020).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 이용이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제20권 제9호, pp.224-237.



결국, 광고 메커니즘에 지배받기 시작한 신인류적 특성상 '레커'화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sup>33)</sup>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직관적 요구'가 반영된 법률에 기반해 구성되는 것이라면 사실 시사 유튜버의 역할은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다. '국가기구가 여론이라는 내재적 기준에 의거해 정당성을 요구받는다'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비추어 봐도 유튜버의 여론 형성 기능을 도외시하는 건 비현실적인 일일 것이다. 물론 한 사회의 민주적 헌법에 대한 수용도가, '민주적 시스템 내에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고려되고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시민 개개인의 기대와 인식에 좌우된다고 보면, 시민이 민주주의 시스템에 바라는 기대와 민주적 헌법 수용을 위한 인식 도구의 역할을 '레커화한 유튜버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하다.<sup>34)</sup> 오히려 최근 사이버 괴롭힘을 유발하는 사이버 레커들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처럼, 확증편향이나 근거 없는 선동, 자극적 발언 등으로 플랫폼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더 많아 보인다.<sup>35)</sup>

가령 <그림 1>에서 보이듯, 최근 1년(2023년 8월 31일~2024년 9월 1일) 사

33) 손준영·최원영 (2024. 7. 12). 수익 챙기려 허위 비방·폭로... '레커'에 멎든 유튜브. <동아일보>. URL: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712/125909890/1>

34) 천현우 (2024. 8. 26). [2030 플라자]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를 버릴 수 없다. <조선일보> URL: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8/07/F4UO5LKEZBE3FECG2AQ4MIQH3Q/>

35) 유튜버의 레커화는 인플루언서로서 영향력을 키우는 과정에 대한 관찰에서 이미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유주현 (2023. 4. 1). 인플루언서 과잉 시대... "영향력이 돈" 팬덤몰이 광풍, 상업성 지나쳐 '디인플루언싱' 현상도. <중앙일보>.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1726>

이, 사이버레커(유사어 포함) 연관검색을 해보면 처벌>협박>소송>손해배상>폭력 연관어가 상위에 링크된다.

〈그림 1〉 '사이버 레커' 연관어맵



출처: 썬트렌드(sometrend) 솔루션을 사용하여 필자 자체 수행 /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 유튜브, (X(트위터) 등 총 35,365건 연관어 분석

사이버 괴롭힘을 유발하는 사이버 레커로 인한 사회문화적 퇴행의 징후는 명백한 것이지만, 사실 이 문제를 비윤리적이고 예외적인 특정 레커의 문제로 돌리고 낙인찍는 것으로 종료하는 건 사태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특정 사이버 레커가 보여준 사이버 괴롭힘<sup>36)</sup>은 개인의 잘못된 행동이지만, 앞서 살펴 보았듯, ‘외로운 사회’라는 역학 구조의 한 현상형태로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동시대 문화와 사회생활에 이미 만연한 징후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일지도 모른다. 레커 유튜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해 있음에도, 그것은 다양한 사회적 병폐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증상에 가깝다.

최근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뒤르켐(E. Durkheim)의 ‘아노미(Anomie)’ 개념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sup>37)</sup> 격동의 근대 프랑스 사회가 직면했던 윤리적 문제를 아노미 개념으로 풀어냈던 그는, 당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유발하는 불

36) 최근 들어 SNS를 뜨겁게 달군 ‘짜양 사태’에서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전국진’ ‘주작 감별사’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유튜브 정책 위반으로 ‘수익창출 중단’ 조치도 취해졌다. 오인애 (2024. 8. 1). [기획] ‘인격살인’ 사이버 레커 논란... “대형플랫폼 규제와 형량 강화”. <법조신문>

37) 정보인 (2024. 7. 12). 폭로·협박 무법천지 ‘사이버레커’...“유튜브 아노미 상태”.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2078900004>

안정한 상태가 '무규범' 또는 '이중규범'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기존의 사회규범들이 힘을 잃거나 급격하게 파괴되어 사회혼란을 일으킨다는 뒤르켐의 진단은 심지어 이 규범 상실의 상태가 자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38)</sup> 뒤르켐에 따르면, '아노미적 자살'은 욕구에 대한 자율성에 의해 생기는 아이러니한 자살이다. 경계선이 없는, 끊임없는 욕구가 언젠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절망에 다다르고 이런 상황이 결국 자살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플랫폼 내부의 규범적 기준이 불확실한 구조 속에서 레커들의 극단적 욕망과 돈벌이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되는 일탈이 '증상'일 수 있는 이유다.

아도르노(T. W. Adorno)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의 원인을 사회 관계 속에서 찾으려는 관점은 더욱 힘을 받는다. 사이버 괴롭힘을 유발하는 레커는 선정적 관음증적 유희를 악용하는 미디어 문화산업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 '소외'의 산물인데, 어려서부터 미디어 문화산업에 노출된 개인은 진정한 인간 관계에서 소외되고 공감과 연민을 배우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다. 이렇게 성장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이용자들은 미디어산업에 의해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부터 단절되고,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감각적이고 충격적인 콘텐츠를 찾는다. 익명의 디지털 공간에서는 소외감이 더욱 심화된다.

사이버 레커들의 보다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 사회 개인들은 스스로를 경쟁에서 패배자라고 의식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 우월한 지도자를 찾는다.<sup>39)</sup> 오늘날 이용자들은 존재적 불안감을 보상받기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보다 우월한 지도자를 찾고 있으며 그에게 권력을 이양하여 대리행사케 함으로써 책임감에서 벗어나려는 심리상태에 빠져든다. 자율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대신 사이버 레커가 이끄는 '여론 물이'에 동조하는 경향이 깊어지는 것이다.<sup>40)</sup> 오늘날 많은 구독자와 이용자들은 이미 비판적 사고와 자율성을 상실한 상태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들은 곧 잠재적 유투버이기도 하다.

38) 뒤르켐에 따르면 아노미 시기에는 자살률과 타살률이 똑같이 증가한다. 양자는 사회적 규범으로 욕망을 충족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일탈행위다. 자살과 타살은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도 같다. 서원희 (2023, 11, 22). 높은 자살률, 무차별범죄 급증...자살·타살 본질 다르지 않아.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17448.html>

39) 막스 호르크하이머, 테오도르 W. 아도르노 (2001). <계몽의 변증법>. 김유동(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40) 아도르노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 더 강력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모든 폭력의 근원이라고 분석한다. 테오도르 W. 아도르노 (2005). <미니마 모랄리아>. 서울: 도서출판 길

## 여론 권력, 제4부 vs. 제5부

사이버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레커들에 가려있지만 시사 유튜버들은 언론과 플랫폼이라는 '이중규범'의 아노미 현상 속에서도 어쨌든 여론에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여론은 기존 언론이 창출하는 여론(저널리즘 공론장)과 SNS 플랫폼이 창출하는 여론(플랫폼 공론장)으로 나뉘어졌고, 결국 상호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널리즘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보도하는 반면 플랫폼은 역으로 저널리즘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저널리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sup>41)</sup>

우리는 언론이 정치와 지나치게 친해지면서 발생한 부작용 현상을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봐왔다. 언론이 여론을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과연 '정언유착'이라는 병폐를 끊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을 둘러싼 저널리즘과 플랫폼의 경쟁은 어쩌면 고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뉴스 이용자들이 언론사 뉴스만 뉴스라고 인식하기보다 SNS 플랫폼에 올라오는 광의의 시사 정보를 뉴스처럼 소비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튜브 뉴스 소비 현상이 몰고온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사 유튜버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로 인한 확장편향이나 가짜뉴스 확산 같은 문제들 뿐만 아니라, 뉴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널리즘과 플랫폼 공론장, 이 새로운 권력분립은 잘만하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PC와 키보드, 웹캠과 함께 알고리즘의 지원을 받는 유튜버들이 민주주의의 제5부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힘의 균형은 이미 형성되고 있다.<sup>42)</sup>

얼마전 영국 일간 <가디언>(Guardian)의 편집국장인 앨런 러스브리저(A. Rusbridger)는 한 인터뷰에서 “전문 저널리스트의 취재 차량이 떠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SNS 이용자들은 여전히 관심 있는 주제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제4부로 불려온 저널리즘의 패권은 이용자들이 만들어가는 플랫폼 공론장이라는 제5부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공간은 더 이상 언론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유튜버들의 품질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41) 가령, 올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시사 유튜브 채널의 여론 영향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유튜브 공론장'이라는 용어가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진호 (2024. 5). 격변하는 선거 보도 환경\_유튜브 정치, 유튜브 공론장의 본격 개막. <신문과 방송> 6월호 No.642.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42) 실제 유튜브 상에서 소비되는 시사 콘텐츠들은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생산하는 기존 뉴스 형식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 차별화된 뉴스 문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유튜버들은 이미 공공외교의 기능도 하고 있다. 정호윤 (2023). 유튜버와 디지털 공공외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 방안 모색. <국제지역연구>, 제27권 제3호, pp.181-202.

는 지적인, 2차 대전 종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득세한 라디오를 무시했던 종이신문사들의 불안한 심기와 닮아있다. 물론 기존 언론이 '국민국가'라는 개념 속에서 통합적 여론 형성을 추구한 것과 달리, 사회 각 분야별로 분화됐을 뿐만 아니라 게이크키퍼(gatekeeping)마저 결여한 유튜버들이 사회 전체적인 통합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하버마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가 더 이상 파악 불가능한 수준의 가짜뉴스의 세계, 즉 “진짜 정보와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없는 세상”<sup>43)</sup>이라고 진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버들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가 “의견과 정신을 형성하는 힘을 갖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플랫폼 역시 “비록 자신이 제작하지도 편집하지도 않더라도 뉴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변동” 속에서 여론 지배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 매체는 책임과 함께 규제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힘이 세질수록 보다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공론장의 역할을 위해 공적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호불호나 유불리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그것은 “헌법적 명령(constitutional imperative)”<sup>44)</sup>이다.

## 결론에 대신하여: The Real Thing

국가, 종교, 가족, 레거시 미디어 등 전통적인 여론 형성기관이 여론을 주도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사이버 괴롭힘으로 인해 멸칭이 돼 버린 사이버 레커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유튜버들이 제5부로서의 능력을 포기한다면 “미신이나 부족사회, 혹은 집단적 사회와 같은 닫힌 사회(closed society)”에서 “개개인이 (외로움을 떨쳐내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있는) 열린 사회(open society)”로의 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다.<sup>45)</sup> 사이버 레커의 폭력에서 벗어난 비폭력적인 플랫폼 공론장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앞으로 AI(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가 심화되고 디지털 플랫폼 권력이 득세한다면 제5부에서 형성된 여론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여론 속에는 ‘정의의 영원한 실체적 원리들 그리고 전체 헌법 및 입법과 보편적 상태 일반의 참다운 내용’이 들어있지만 ‘끝없는 오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여론은 이성적 ‘통찰’과 ‘참다운 사고’로 이끌어져야 한다.’<sup>46)</sup> 서두

43) 위르겐 하버마스 (2024). 앞의 책 p.72.

44) 위르겐 하버마스 (2024). 앞의 책 p.59.

45) 칼 포퍼 (2006). <열린사회와 그 적들 1>. 이한구(역). 서울: 민음사. pp.1-2.

46) 강성화 (2003). 해결 법철학 <철학사상>.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제16권 별책 제2권 제7호, pp.123-124.

에서 인용했던 헤겔이 여론에 대해 이어간 말이다. 과연 '신인류'는 이성적 통찰과 참다운 사고로써 선(善)한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탈진실 시대에 유튜버는 진짜(The Real Thing)가 될 수 있을까. '언론법'외典' 여론篇'에 던져진 화두다. 🍵